

우리 다기·우리 茶 이야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라이브러리 파크 북라운지는 조용히 앉아 책을 읽기 좋은 공간이다. 책장에는 문학·예술·역사 등 2000권의 단행본이 꽂혀 있다. 특히 건축·디자인·문학·미술·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 주간지와 월간지를 만날 수 있다. 공간에는 독일 작가 울리히스 포프의 '비트 폴' 작품이 설치돼 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정보 과잉 시대에서 정보의 태어남과 사라짐을 상징한다.

지금 이 곳에서는 은은한 차 향기도 함께 흘러 차 한잔 마시며 책을 읽기 좋다. 북라운지 한편 공간에는 다기(茶器)도 전시돼 있다. 도예가 조재호(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과 교수·중국 절강성 공상대학 객좌교수) 작가의 다완 작품으로 감각적인 색채와 변화무쌍한 문양이 인상적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차문화디자인연구소와 ACC가 공동 기획한 'ACC와 함께하는 우리 차 이야기'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행사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맞춰 어울리는 차와 국내 최고 도예가들이 만든, 그 차를 마실 수 있는 다기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또 차와 관련한 강의도 열리며 다양한 차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지난 18일 막을 내린 '봄' 전시는 장성에서 '희미요'를 운영하고 있는 도예가 김형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른 봄에 마시는 녹차가 주제였던 전시에는 백토로 구운 다기들이 전시됐고 박근형 전남대 명예교수의 '차란 무엇인가' 강연도 열렸다.

오는 30일까지는 '여름'을 알리는 전시로 '달차'와 함께하는 조재호 도예전에 열린다. 조 작가는 행사 기간 중 매일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직접 말차를 대접하며 다담(茶談)을 나눌 예정이다. 23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조 작가가 '개화문다완과 찻자리'를 주제로 강의도 한다.

이어서 오는 12월1일부터 10일까지는 '가

한국차문화디자인연구소-문화전당 북라운지서 전시·강연
30일까지 '여름' 조재호전...사계절 차 시음 행사
연말까지 '가을' 여성작가 9인전·'겨울' 이치현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북라운지에서 전시 중인 조재호 작가의 다양한 다완 작품들.

을'을 이야기하는 '여성작가 9인전'이 열린다. 신순미, 이경희, 박유심, 강운구, 김수정, 이정운, 이신애, 구영화, 신지영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로 함께하는 차는 '황차'다. 현장 스님의 '호남의 차시(茶詩)'에 담긴 스토리텔링 강의도 펼쳐진다.

'겨울' (10~20일) 전시는 '떡차'를 만나는 시간으로 도예가 이치현 작가가 함께 한다. 마지막으로 21일~31일까지는 '아시아 차와 우리차 이야기' 전시가 펼쳐진다. 다양한 우리차와 함께 부탄 등 아시아 각국의 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율리암 리 부탄 문화원장의 강의도 열린다.

전시장에 오면 최고급 우전차를 시음해 볼 수 있다.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차회와 다례 회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차도 제공한다.

전시장을 찾는 이들은 다양하다. ACC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직원들은 물론이고 특히 전당에서 작업 중인 외국 작가들이 들르는 인기 장소이기도 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0월 (사)한국명선차인회 광주·호남 지부 등이 ACC에서 열었던 '대한민국 어울림 차회' 행사가 인연이 돼 진행하게 됐다. 차인회는 지난 2016년에도 ACC에서 '달빛 차회' 행사를 개최했었다.

행사를 진행하는 한국차문화디자인연구소 오희자 대표는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를 알리고 동시에 바로 한국을 알리는 장소이기도 해 우리 차와 우리 다기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전시를 열게 됐다"며 "좋은 의도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작가 선생님들과 다례 회원 등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와 시음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북라운지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된다. 월요일 휴관. 문의 010-6331-32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원중의 달거리 '십일년의 기록' 펴내 26일 빛고을시민문화관서 103번째 공연...출판 기념회도

"십일년의 세월을 200쪽 남짓한 분량에 넣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뽕'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가 지난 8월 100회를 맞은 뒤 그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기록집 '십일년의 기록' (더 문 펴냄)을 출간했다. 다달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무료 공연을 100번 여는 것은 지역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에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다는 게 공연팀의 변이다.

출간기념회 겸 103번째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몇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공연을 도운 이들을 초청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열 계획이다.

208쪽으로 엮어진 책은 공연 연혁과 일지 등으로 다양하게 채워졌다. 또 김원중씨가 직접 작성한 초대의 글과 공연 모습이 빠짐 없이 실렸다. 김원중씨는 편집에만 3개월이 넘게 걸렸으며 제작 과정의 고충을 털어냈다.

"공연 사진이 1회당 200~300장에 달해 사진을 고르는 작업이 힘들었어요. 쌓아온 자료를 다시 보니 추억이 된 플로피 디스크까지 등장하더군요. 제작하는 내내 소소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공연의 역사를 오롯이 남기기 위해 면밀한 분석도 이뤄졌다. 그동안의 출연진 1000명을 장르별로 나눠 통계를 내고 공연에서 초연한 창작곡들을 연도별로 나열했다. 2010년부터 공연을 영글에 담은 리일천 작가와 공연과 함께 한 여러 예술가들의 전시도 2쪽에 걸쳐 정리했다.

이번 공연에는 달거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가수 오정목씨와 오랫동안 함께한 백장우씨가 출연한다. 김원중씨는 "이번에 출간한 책은 달거리와 함께 한 3만 명의 관객에게 드리는 기억과 기록의 산물"이라며 "혹시라도 빠진 이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3670-5802.



김원중의 달거리 '십일년의 기록'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몇 해를 제외하고 꾸준히 공연을 도운 이들을 초청해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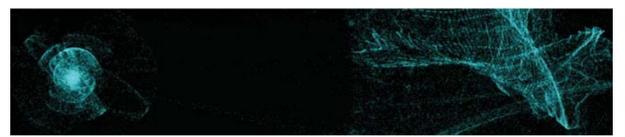
208쪽으로 엮어진 책은 공연 연혁과 일지 등으로 다양하게 채워졌다. 또 김원중씨가 직접 작성한 초대의 글과 공연 모습이 빠짐 없이 실렸다. 김원중씨는 편집에만 3개월이 넘게 걸렸으며 제작 과정의 고충을 털어냈다.

"공연 사진이 1회당 200~300장에 달해 사진을 고르는 작업이 힘들었어요. 쌓아온 자료를 다시 보니 추억이 된 플로피 디스크까지 등장하더군요. 제작하는 내내 소소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공연의 역사를 오롯이 남기기 위해 면밀한 분석도 이뤄졌다. 그동안의 출연진 1000명을 장르별로 나눠 통계를 내고 공연에서 초연한 창작곡들을 연도별로 나열했다. 2010년부터 공연을 영글에 담은 리일천 작가와 공연과 함께 한 여러 예술가들의 전시도 2쪽에 걸쳐 정리했다.

이번 공연에는 달거리라는 이름을 붙여준 가수 오정목씨와 오랫동안 함께한 백장우씨가 출연한다. 김원중씨는 "이번에 출간한 책은 달거리와 함께 한 3만 명의 관객에게 드리는 기억과 기록의 산물"이라며 "혹시라도 빠진 이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3670-580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태복·정진희 독일 '기가 헤르츠 어워드' 수상

ACC 레지던시 참여 작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지던시에 참여한 조태복(34·왼쪽), 정진희(30) 작가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기가 헤르츠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가 헤르츠 어워드'는 독일 예술과 미디어센터(ZKM)와 남서독일 방송국(SWR)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전자음악, 사운드아트 분야 시상식이다.

조태복, 정진희 작가는 지난해 문화전당 융복합 콘텐츠 분야 국제 레지던시 사업인 크리에이티브 인 랩에 참여하여 '+3x10^8 m/s, beyond the light velocity' <사진>라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두 작가의 고민이 물리학적 관심으로 연결돼, 사운드와 동시에 우주를 경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24~25일 독일 ZKM에서 진행된다. 두 작가는 내년 ZKM에 초대돼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예정이며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의 전시도 준비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spark@kwangju.co.kr

시민 100인의 발레교실 작품 발표회

광주문예회관 25일 무료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광주문화예술회관 '발레교실 작품발표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 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문예회관이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실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발레교실에는 유아 4

개반과 성인 중급반, 가족 발레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한해 동안 발레를 배웠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이 무료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발레교육, 공연감상, 작품발표회가 연계된 체험중심 융합교육으로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시립발레단 상임단원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총 8개 반을 지도했다. 이날 무대에서 참가자들은 호두까기 인형 등 16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무료 관람. 문의 062-613-82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종경 조선대 교수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수상



500여회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한국화의 미래지향적 가능성 작품을 표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교수는 특히 올해 처음 열린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사 개최에 힘을 보탰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6일 오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시66주년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특허공법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6년무상A/S/정기점검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쳐보세요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